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
재해피해 지원 제도 개선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경제동향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현장여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장마 종료 후, 채소류 가격동향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

※ 본 자료는 2013년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실시배경 및 점검사항

- [배경] 6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이 저조**해 지는 등 취약점이 나타난.
 - (방역활동 저조) 최근 구제역·AI가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경각심이 약화되고 하절기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차량등록제 低 등록률)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해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 등록률은 63% 수준에 그침.
 - ※ 전체 축산관계자 차량등록대상 65천 대 중 41천 대 등록 (등록률 63%)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있음.
- [점검목적] 취약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독려,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구제역·AI 재발 방지**
- [점검기간] 2013.8.8.~8.29(3주간)
- [점검대상] **방역 취약 농가대상(구제역 백신접종 등) 전국 일제점검**
- [점검사항] 가축방역실태 전반(소독·백신접종·차단방역 등)
 - i) 소독 실시, ii)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iii)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vi)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실태 점검, 축산차량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제도 활동 병행
- [점검방법] 농식품부 점검과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구분 실시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점검) 9개반 18명
 - (지자체 자체점검) 시·도에서 점검계획 수립 → 관할 시·군 등 통보

□ 점검결과 조치내용

- **[방역위반 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조치
 -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적용
- **[방역소홀 농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홍보물 20만 부 제작·배포
 -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방역 투입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국경검역 강화]** 하절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구제역 및 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 축산 관계자 중 해외여행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및 여행객에 대한 국경 검역 홍보캠페인 실시
 - 전국 공항·만에 대한 하절기 국경검역 실태조사

주요 농정 이슈_2

재해피해 지원 제도 개선

※ 본 자료는 2013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개선: 재난지원금 지원확대, 폐기비 추가지원, 각종 재난지원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 개선
- **[총 재난지원금] 농가 지원 폭 확대**
 - (개선 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 불가
 - (개선 후) 8월부터는 5천만 원 까지는 현재와 동일, 그 이상은 1억 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
- **[산지폐기] 비용 지원 추가확대**
 - (개선 전)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
 - ※ 현재의 작물을 걷어내고 다른 작물로 바꿔 심을 때 드는 비용
 - (개선 후)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 추가 지원
- **[행정처리] 행정기관 간 피해정보 공유**
 - (개선 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선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 시, 기관 간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한 모든 지원* 제공
 - ※ (국세청) 국세 기한연장, (안행부) 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 전기료 감면,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산림청) 복구자금 융자 등
- **[정전 피해]**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경제 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8월 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내수 및 대외거래

○ [6월 중 소매판매] 전월대비 0.9% 증가

- (설비투자) 기계류 투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항공기 도입 등으로 운송장비투자가 증가로 전환
- (건설투자) 토목이 발전소 착공, 정부 SOC 재정집행액 확대 등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

○ [7월 중 수출] 비IT제품의 경우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

- (6월 중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 유지

<내수 및 대외거래 관련지표>

단위: S.A., 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6월	3/4	4/4	1/4	2/4	4월	5월	6월
소매판매액	4.5	2.3	-0.4	1.2	0.4	-1.2	0.4	-0.7	0.0	0.9
(전년동기대비)	-	-	1.1	2.6	2.5	0.2	1.1	2.0	0.5	0.8
설비투자지수	4.0	-2.0	-3.7	-6.8	0.8	-4.5	-1.6	-3.8	0.8	4.5
(전년동기대비)	-	-	-7.0	-8.2	-6.9	-15.4	-10.6	-12.1	-11.9	-7.8
건설기성액	-6.4	-5.8	-1.7	1.0	1.4	4.4	6.9	9.6	-4.0	0.4
(전년동기대비)	-	-	-14.6	-2.3	-5.6	5.2	14.8	19.4	12.6	12.8
수출 ¹⁾	19.0	-1.3	0.9	-5.8	-0.4	0.4	0.8	0.2	3.1	-1.0[2.6]
수입 ¹⁾	23.3	-0.9	-6.3	-6.9	-1.1	-3.0	-2.7	-0.4	-4.6	-3.0[2.7]
경상수지(억 달러)	260.7	431.4	58.8	145.6	148.3	99.7	198.0	39.3	86.4	72.4

주: 1) 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내는 7월 중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관세청, 한국은행

□ 생산활동 및 고용

○ [6월 중 제조업 생산] 반도체·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석유정제,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

○ [서비스업 생산] 전월대비 0.1% 감소

○ [6월 중 취업자수] 전월대비 6.9만 명, 전년 동월대비 36.0만 명 증가

- (실업률) 3.2%, 전월과 같은 수준

<생산 및 고용 관련지표>

단위: S.A., 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6월	3/4	4/4	1/4	2/4	4월	5월	6월
제조업 생산	6.0	0.8	-1.1	-2.3	3.0	-0.9	-1.5	0.4	-0.1	0.4
(전년동기대비)	-	-	0.5	-1.1	-0.2	-1.8	-0.9	1.4	-1.4	-2.7
평균가동률	80.2	78.1	78.4	76.2	77.8	77.1	75.5	75.4	75.5	75.6
서비스업 생산	3.2	1.6	-0.5	0.9	0.0	0.3	0.4	0.5	0.1	-0.1
(전년동기대비)	-	-	1.2	1.5	0.8	0.8	1.7	2.6	1.6	1.0
취업자수 증감(만 명)	41.5	43.7	-3.0	10.3	-0.6	4.3	17.7	12.7	-2.5	6.9
(전년동기대비)	-	-	36.5	50.6	34.2	25.7	32.4	34.5	26.5	36.0
실업률	3.4	3.2	3.2	3.1	3.0	3.3	3.1	3.1	3.2	3.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7월 중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

-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농축수산물가격(1.1%)이 오름세로 전환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

○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

- 전세가격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강화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 확대

<물가 및 부동산가격>

단위: 전기말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7월	2/4	3/4	4/4	1/4	2/4	5월	6월
소비자물가	4.2	1.4	-0.2	0.1	0.8	-0.3	0.7	-0.2	0.0	-0.1
(4.0)	(2.2)	(1.5)	(2.4)	(1.6)	(1.7)	(1.4)	(1.1)	(1.0)	(1.0)	(1.4)
농산물 및 석유류	3.6	1.2	0.0	0.6	0.3	0.3	0.4	0.5	0.4	0.1
제외지수	(3.2)	(1.6)	(1.2)	(1.6)	(1.4)	(1.3)	(1.4)	(1.5)	(1.6)	(1.4)
아파트 매매가격	9.6	-0.2	-0.1	0.1	-0.5	-0.4	-0.2	-0.1	0.0	-0.1
아파트 전세가격	16.2	4.3	0.2	0.9	0.7	1.4	1.2	1.0	0.2	0.3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조사」

※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http://reporter.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7. 24 ~ 8. 6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26건
- 주요내용

〈농촌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현장여론〉

- 농촌관광 비슷비슷...지역 환경과 특색에 맞는 관광 마련돼야
- 체험프로그램 등 농촌관광 여건 부족
-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 발전해야
- 농산물 수확체험, 유적지 해설 등 농촌다운 관광 중요
- 모범사례 및 트렌드 벤치마킹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해야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필요

〈기타 농촌현장 여론〉

- 양과 적정재배면적 유도 위해 재배의향조사 미리 실시·발표해야
- 폐수배출 관련 환경법 강화로 수질오염 막아야
- 중국산 저가농약 성분 및 품질검사 철저히 해야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항 요구

□ 농촌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 농촌관광 비슷비슷...지역 환경과 특색에 맞는 관광 마련돼야

-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관광, 농촌스럽지 못한 관광이 문제라고 봄. 농촌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 세계에서 인정할만한 농촌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강원 홍천, 변해동>

- 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관광마을을 무조건 집중 벤치마킹해 어느 지역마다 복사판 프로그램으로, 결국은 마을과 마을끼리 똑같은 메뉴얼을 가지고 경쟁하는 꼴임. 그래서 한두 번 다녀간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호감을 주지 못하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움.<충남 청양, 장석우>
-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관광요소만 만들어 농촌지역마다 비슷한 관광형태를 지니고 있는 실정임.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촌관광을 시도해야 함.<경남 김해, 김병철>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과 자원, 인근의 명승지 등 관광 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선정해 추진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고,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을단위 관광전략이 필요함.<전남 순천, 김종근>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 놀이마당, 돌레길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단체를 유도해 농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경남 함양, 박태우>
- 요란한 축제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경치, 먹거리, 전통문화, 특이체험 개발과 이를 찾아내어 상품화시킬 수 있는 지역 인재를 교육 시키는 일부터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경남 통영, 이현순>

○ 체험프로그램 등 농촌관광 여건 부족

- 일일관광은 스쳐가는 관광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뒷처리만 번거로운 편임. 체험관광은 관광객들이 먼 길, 많은 시간을 투자한 데 비해 다양한 연계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만족감을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있음.<경남 거창, 김정오>
- 깨끗한 환경과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도시민들이 찾아 올 것임. <전남 화순, 나종주>
- 도시민들이 한번 다녀간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농촌관광의 성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 도시민들이 보고 경험하고 즐기고 먹고 잘 수 있는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해야 함.<경기 남양주, 김용덕>

- 완도는 서울에서 7~8시간 소요되는 차를 타고 또 비싼 승선비를 내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볼거리가 적고 지역먹거리인 전복은 가격이 비싸 시간과 경비 투자에 비해 실망하는 관광객이 많음.<전남 완도, 박향숙>
- 최근 들어 사과를 분양해 오는 몇몇 사람을 보았지만 볼거리, 놀거리, 계곡도 없는 여건 속에서 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은 본 적이 없음.<충북 보은, 윤정임>

○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 발전해야

- 전시성, 일회성으로 추진한 관광은 유지관리가 안되고 예산 및 인력 낭비로 주민소득 향상과 연결되지 않고 있음.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관광객에게 제공해 직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소득향상, 농업의 6차 산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농업인 교육과 장기 저리융자 지원, 도농 협약,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을 유지토록 해 농업의 6차 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전남 무안, 배병열>
- 관광객이 농촌에 찾아옴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없으면서 교통의 불편, 환경만 더 오염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경남 통영, 이현순>

○ 농산물 수확체험, 유적지 해설 등 농촌다운 관광 중요

- 아이들이 밭에서 채소를 직접 따고 식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촌체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설사, 즉 스토리텔러가 필요함.<경남 창원, 오인하>
-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농촌가정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따고 요리하는 체험을 하는 농촌 관광이 되어야 함.<강원 평택, 연규석>
- 고택을 방문했을 때 상주하는 해설사께서 고택에 대한 역사에 여담을 섞어가며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 안내판만 들여다보았으면 몰랐을 감동을 생생히 전해줄 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이 전시성 행사보다 좋은 관광이라 생각됨.<충남 당진, 남도성>

- 농촌관광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농가와 마을단위 연계를 통해 문화해설, 체험, 견학, 숙박, 음식, 농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의 등급별 비용을 책정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촌관광네트워크를 구축·홍보해야 함.<전북 고창, 장연희>

○ 모범사례 및 트렌드 벤치마킹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해야

- 현재 이슈로 떠오른 캠핑과 같은 트렌드를 잘 적용해 벤치마킹하는 능동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머무는 휴양의 공간에서부터 문화 공간,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강원 원주, 최탁철>
- 홍성군과 산청군이 우리나라 대표적 농촌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점차 우리나라도 세계 성공사례처럼 그런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음.<경남 의령, 전연수>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필요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제도가 현재 8년까지 지원 가능하나 사무장이 근무일 7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지원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사무장을 새로 뽑을 수 없는 실정임. 사무장은 5일제 근무, 연차, 월차, 4대보험, 퇴직금, 정시 출퇴근의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무시하고 체험장 업무에 소홀해지는 등 오히려 사무장이 감이 되고 마을이 울이 된 입장임.<충남 논산, 박인범>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양과 적정재배면적 유도 위해 재배의향조사 미리 실시·발표해야

- 답리작으로 재배되는 양파는 재배면적확장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 농가의 수취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만큼 적정면적재배를 유도해야 함. 마늘가격이 기대 이하로 형성되어 마늘에서 양파로 재배작목이 전환되고 5.27발표 이후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있어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서는 양파 재배의향조사를 서둘러 발표해줄길 바람.<대구 달성, 곽동준>

○ 폐수배출 관련 환경법 강화로 수질오염 막아야

- 최근 냇가의 오염이 심각해져 물고기는커녕 수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음. 인근 대형축사, 공공학교, 공장들이 비올 때 몰래 폐수를 버리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냇가 인근에는 제초제 살포금지 및 친환경 영농장려, 미생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폐수 배출금지 등 환경법 강화가 시급함.<충남 논산, 박인범>

○ 중국산 저가농약 성분 및 품질검사 철저히 해야

- 요즘 중국산 저가 농약을 많이 수입해 들어와 국내 과수 및 농작물에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음. 중국산 저가 농약이 해는 없는지, 잔류기간 표시는 정확한 것인지 성분검사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유통시켜야 함.<충남 논산, 박인범>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항 요구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농업분야 근무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고, 부적격자의 농가 배치로 오히려 노동생산성 저하 및 고의적 근무태만, 사소한 불편에도 잦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고용농가 압박 또는 무단이탈로 영농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단순히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사업장의 사소한 불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변경요구 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 불허상황에 따라 출국 조치시키고 외국인력 도입쿼터 배정 시 인원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입국자 관리 및 이동방지책을 우선 시 해야 함. 또한, 숙식제공, 출국만기보험,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책정이 높음. 5년 이하의 국내 최저임금의 70~80% 적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분명 중요하지만, 이웃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농축산분야의 소홀한 정책과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고용주 권익은 법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충남 논산, 장찬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8월 5일~9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마늘 수급안정대책 역부족

○ 정부, 8.1일 발표한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놓고 산지가 격앙된 반응. 이에 대해 생산농가·산지농협, 소량 추가 수매로는 **마늘값 하락세 잡기에 역부족**. 마늘 전국 최대 주산지인 창녕군 이방농협 공판장의 경우 **초창기 kg당 2,100원대** → 정부수매가격 발표 직후 1,900원대 → **최근 1,300~1,500원까지 추락해 되레 급락**, 2011년 1kg당 4,500원 선까지 치솟았던 산지 마늘 시세가 이같이 떨어진 것은 **10여년 새 최저** 수준. 또한 당초 7.31일로 예정됐던 창녕지역 수매시기마저 8.6일 이후로 연기되자 농민들은 더욱 분통. **정부의 추가 수매비축 물량이 기대치를 크게 밑돈 데 실망**한 농가들이 주산지 농협을 항의 방문하는 일도 속출. 비축량 시장 격리 방침에도 의구심. 농협 수매를 끝낸 제주 등 일부지역의 <남도> 마늘이 <대서> 마늘 저장창고에 쌓이면서 정작 <대서> 마늘은 저장할 창고를 찾지 못해 건조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 **소매 매장이 이윤 폭 줄이려 하지 않고**, 2~3년간 정부의 **소비지 물가 억제 정책**의 결과 혹은 **작년 값조절정책 여파로 이윤회복 나서는** 등의 이유로 산지 마늘 가격 급락에도 **소비지 깎마늘 값은 거의 제자리**. 8.5일 유통업계, 연고 마늘 소비 증가**로 대형마트 마늘 판매 최근 들어 감소

※ 정부, 7.31일 마늘수급 점검회의·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이날 마늘 수매비축 물량을 기존 9,200t에서 5,800t 추가한 1만5,000t으로 확대, 모두 4만 9,000t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 발표(주간 농업·농촌 동향 2013.08.05 주요 농정 이슈 “2013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 확정” 참조)

※※ 산지 마늘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고향 등 연고가 있는 산지로부터 마늘을 직접 받아 소비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3.8.5) / 농민신문(2013.8.7)

□ 안·중, 안·중·일 FTA 이어 안·뉴질랜드 FTA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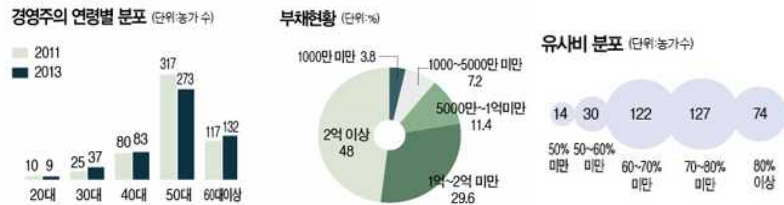
○ 한·중 FTA 협상이 끝난 직후인 7.30일~8.2일까지 한·중·일 FTA 2차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7.26일 열린 한국·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장개방 작업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FTA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 때 채택했던 협상운영세칙을 기초로 양허방식과 협상범위 등의 쟁점 논의. 그 결과,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와 지재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 개최,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과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호주와의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건은 쇠고기. 축산물 관세철폐 일정 농고 캐나다와 공방도 예상**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8.5) / 농민신문(2013.8.7)

□ 낙농가 경영압박 심해진다



- 낙농정책연구소, '2013 낙농경영실태조사'* 발표, **고령화와 부채 증가, 유사비** 증가**, 번식 간격 증가, 수소 초유떼기 판로문제 등으로 인한 **낙농가들의 경영 압박**이 갈수록 **심각**. ▲낙농가의 연령은 **50~60대가 75.8%**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조사 농가의 90% 가량이 가족노동 중심인** 실정으로 **향후 낙농 부문의 후계자 문제 심각**. ▲농가당 평균 부채규모는 **2억1,600만 원**. 부채 규모별 비율은 1억~2억 원이 29.6%, 2억 원

이상은 48%. 시설투자(35.6%), 쿼터구입(28.6%), 사료구입(21.9%)이 농가 부채의 주된 원인. ▲**유사비**는 2013년 평균 **71.3%**로 나타나 ('10년) 62.5% → ('11년) 65.1% → (**'12년) 68.2%** **연속 증가**. 특히 '10년 이후 70% 미만 농가의 비율은 점차 낮아진 반면, 70% 이상 농가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울러 한·육우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상당수의 낙농가들이 **수소 초유떼기의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 '판매한다'는 농가는 46.3%에 불과, '무상으로 공여한다' 25.5%, '판로를 찾지 못해 자가 육성·비육한다' 25%. 이처럼 경영 압박 요인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 목장 경영에 대해 18.7%의 농가가 규모를 축소(3.4%)하거나 포기(4.3%), 또는 불확실(11%)**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응답

※ 6.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낙농가 중 700호(11%)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원유값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3.8.5) / 농민신문(2013.8.7)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농업계 반발

- 정부·새누리당, 지난해 5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재정·행정 인센티브* 강화**하는 조건으로 **재추진** 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 **농업계 반발** 예상. 지역에 따라 전교생 6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가 전국적으로 약 2,000곳, 대부분 농촌 학교인 점을 감안, **통폐합 대상의 상당수가 농촌 학교**에 집중. 이에 대해 (농업계) **학생들의 통학 거리 멀어져** 접근성 문제 발생, 지역경제 기반 약화, 교육의 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 형성·유지 역할** 등 통폐합 반대 ↔ (교육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새누리당은 재정지원 강화 또는 기금형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하기로 한 바 없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 교육감이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 소규모 학교가 삶의 체면, 생태교육, 자연친화적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농촌학교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1개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20억 원에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8.8)

□ 4개월 걸리는 GAP인증 40일 만에

- 농식품부, GAP 제도(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를 '인증 받기는 쉽고, 위해요소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현 3단계*** → **1단계로 간소화** 추진, 다만 GAP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 재배과정 중 위해요소 관리는 더욱 강화**.

이를 위해 8월까지 세부적인 개편 방안 마련, 9월 공청회 거쳐 올해 안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농촌진흥청과 함께 위해요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개정 작업착수

※ 각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지원, 인증기관 등으로 모두 다르고, 최종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계별로 43일, 총 129일가량

※※ GAP에서 규정된 위해요소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 예) GAP 규정에서는 농기구 관리 필수사항으로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명확

자료 : 농민신문(2013.8.9)

□ 한국 식료품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 OECD 3위

- 현대경제연구원, 8.8일, '식품 물가의 국제 비교' 보고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07~2010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 OECD 29개국 중 3위**. 같은 기간에 일본(2.5%), 프랑스(6.2%), 독일(7.2%), 영국(18.7%), 미국(8.2%). 특히 20.1%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의 2배**. **농산품의 생산자물가는 6.5% 상승***하는 데 그쳐 두 부분의 격차 13.6%포인트는 OECD 29개국 중 4위. 시장 경쟁 촉진, 담합 규제 등으로 물가 안정화 가능한 물가 결정시스템 조성하고, **농산품 유통 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소비자가격 전가 방지 필요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 보다 훨씬 높은 것은 농산품의 물가 상승 수준이 확대돼 소비자에게 전가

자료 : 연합뉴스(2013.8.8) / 매일경제(2013.8.9)

□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 불균형,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가격책정**이나 **재고처리** 등에 있어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 불균형
 - **저지방 또는 비선호 부위 생산량**이 **삼겹살과 목살 생산량의 2배**를 넘지만, 국내 돼지고기 소비 시장은 **삼겹살과 목살에 편중**
- 최근 돈가 폭락 문제가 겹치면서 한돈산업에 부정적 영향
 - ⇒ 삼겹살·목심 부위에 편중된 **국내 돼지고기 소비문화 변화 필요**

[부위별 수급 불균형 실태]

- '12년 기준 국내 돼지고기 연간 생산량(추정치)은 74만9,200톤(육류 유통 실태조사서)
 - (소비자 선호 부위로 분류되는 **삼겹살과 목심 생산량**) 각각 14만 6,100톤, 7만4,700톤, **전체 생산량의 29.5%**
 - (저지방 부위 또는 비선호 부위로 불리는 **안심·등심·앞다리·뒷다리 등의 생산량**) 총 52만8,300톤, **전체 생산량의 70.5%**
-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가 편중됨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도 부위별로 편차 심화**
 - '12년 기준 돼지고기 총 수입량(검역기준)은 27만6,155톤 중 삼겹살 13만5,910톤, 목심 3만33톤, **전체 수입량의 60.1%** 점유
-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편차 심화**...부위별 가격차이 많게는 **3배 이상**
 - '12년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평균도매가격은 삼겹살 1만2,575원, 목심 1만1,774원인 반면, 안심 6,757원, 갈비 6,288원, 앞다리 6,070원, 등심 5,337원, 뒷다리 3,950원

[새로운 부위 개발로 소비 불균형 해소해야]

- (수입산 돼지고기) **다양한 '스펙', 저렴한 가격**으로 **2차 육가공업체 등에 대량 공급**되면서 **국내산 저지방 부위 소비** 더욱 위축
 - 현재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일명 **'목전지' 형태로 국내에 유통**, 양념육(왕갈비 등)이나 햄·소시지 원료육 등 다양하게 사용

○ 국내산 돼지고기도 지금보다 더 **다양화된 부위 개발로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 목심과 앞다리가 함께 붙어 있는 ‘**목전지**’나 삼겹살과 등심이 붙어 있는 ‘**등삼겹살**’과 같은 **새로운 부위 명칭 필요**

※ 현재 돼지고기 명칭은 안심·등심·목심·앞다리·뒷다리·삼겹살·갈비 등 크게 7가지로 분류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2년 자료 기준),

- 목심 kg당 1만1,770원일 경우 ‘목전지’는 8,097원(목살 1만1,770원×5.34kg+전지 6,070원×9.67kg을 환산)으로 **3,673원 가격차** 발생
- 삼겹살이 1만2,570원일 경우 등삼겹살은 9,570원(삼겹살 1만2,570원×10.43kg+등심 5,330×7.37kg을 환산)으로 **3,000원 가격차** 발생

[새로운 부위 개발...소비자 선택권 확대 모색]

○ **목전지와 같은 수입산 돼지고기 부위**가 가공과정을 거쳐 ‘왕갈비’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시장 장악**

○ **대분할 부위를 합친 부위 개발 시, 부위 간 원가 조정**으로 삼겹살과 같이 가격이 비싼 부위는 인하, 앞다리와 같이 가격이 저렴한 부위는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 앞다리나 등심 등 비선호 부위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부위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

○ 이를 통해 **FTA 확대에 대응한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 **저지방 육류소비 트렌드**에도 **부응**하는 계기 마련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8.5)

연구 지원 정보

장마 종료 후, 채소류 가격 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장마 종료 후 채소류 출하 순조로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장마가 끝난 직후 그동안 강세를 유지했던 **채소류 가격**은 **8.6일부터 일제히 하락**

○ **가락시장 채소류 반입량 증가**

- (장마기간 중) 1일 5,500 ~ 5,700톤 수준 → (장마기간 이후) 1일 5,800 ~ 6,500톤 수준으로 1일 평균 550톤 정도 늘어남.

※ 채소류 반입량 (7.20일) 5,699톤 → (7.30) 5,452 → (8.5) 6,513 → (8.6) 5,756

○ 폭염, 국지성 호우·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향후 가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불안요인 발생 시 선제적 대응 필요

□ 채소류 주요 품목별 동향

○ **[배추, 무]** 현재 강원도지역에서 주로 반입

-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8.6일 현재 3,791톤 중 731톤 방출), 비가 그친 후 수확작업도 정상화되어 가격 하락

※ 배추의 경우 “수급조절매뉴얼” 상 “주의단계(포기당 2,439~2,736원)”에 해당

○ **[상추, 시금치]** 토양과습 현상이 완화되면서 작황 회복

○ **[오이 등 열매채소]** 일조량이 늘어남에 따라 착과량 증가로 가격 하락

○ **[양파]** 6월에 수확이 종료되어 현재는 저장중인 물량이 출하되고 있어 가격변동이 크지 않는 상황

○ **[마늘]** 생산량 증가로 86천 톤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 하락세

- 정부수매 등을 통한 시장격리를 추진

<채소류 가락시장 도매가격 추이>

구 분	평년	전년 (8.상순) (A)	7.10	7.20	7.30	8.5 (B)	8.6 (C)	C/A (%)	C/B (%)
배추(원/포기)	2,131	1,998	1,212	1,967	2,492	3,033	2,664	33.4	-12.1
무(원/개)	1,387	1,042	781	897	1,176	1,163	1,112	6.7	-4.4
대파(원/kg)	1,336	1,755	568	888	1,275	1,421	1,322	-24.7	-7.0
상추(원/4kg)	17,417	13,372	8,355	43,074	28,964	21,428	16,570	23.9	-22.7
시금치(원/4kg)	19,461	24,768	13,086	38,207	24,872	34,198	27,439	10.8	-19.8
오이(원/50개)	15,069	18,121	14,596	26,412	22,962	13,351	12,260	-32.3	-8.2
호박(원/20개)	9,412	6,040	7,087	27,402	18,683	18,109	16,592	174.7	-8.4
양파(원/kg)	865	1,095	748	790	823	844	872	-20.4	3.3
깎마늘(원/kg)	4,966	5,675	4,700	4,600	4,500	4,500	4,340	-23.5	-3.6
건고추(원/600g)	6,816	12,625	8,060	8,060	7,760	7,760	7,760	-38.5	0.0
수박(원/8kg)	15,604	19,155	14,306	13,419	15,231	15,414	21,103	10.2	36.9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